

월남 파병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 3개 사단 해외 진주…침략만 받던 한민족, 역사의 드문 경험 —



1966년 10월 14일 월남에 파병된 비둘기부대를 찾은 김종필 공화당 의장이 현지 여성으로부터 월남모자를 선물받고 있다. 비둘기부대는 건설지원단으로 구성된 비전투 부대다. 김 의장은 이날 월남 국립묘지에 헌화·참배하고 전선戰線 인근의 월남인들을 만나 위문품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신상철 주월 대사, 윤정, 김택수 의원, 채명신 주월한국군사령관.

혁명 9개월이 지난 1962년 2월 13일 중앙정보부장이었던 나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월남을 방문했다.

당시 월남은 북쪽의 공산 월맹군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튿날 북위 17도선의 최전선 1사단을 방문했다. 수도 사이공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오지였다. 그곳엔 3년 뒤 대통령에 오른 구엔 반 티우(1923~2001) 사단장(대령)이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다. 티우 사단장은 17도선 표지판을 가리키며 “이게 한국의 38도선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10여 년 전 북한·중공군의 남침을 맨주먹으로 막아내던 6·25가 상기됐다. 38도선을 넘어온 북한군이 의정부 야산 일대를 개미 떼처럼 새카맣게 밀고 올라오고 정찰 나간 내 머리 위로 포탄이 펑펑 떨어지던 장면, 육사 8기 동기생 40%가 소대장·중대장으로 전사한 기억들이 떠올랐다. 북위 17도선을 설명하는 티우의 눈빛은 ‘미국 등 유엔 참전국들의 도움으로 한국이 살아난 것처럼 월남도 당신 나라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듯했다.

이튿날 고딘디엠 대통령을 예방했다. 그는 “한국군이 월남을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요청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형편을 검토해보자”고만 답했다. 월남 파

병에 대해 아무런 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내심 ‘파병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일었다. 고딘디엠의 첫인상은 펍 부드러웠으나 그 속은 열렬한 민족주의자였다. 가슴 깊은 데서 우리나라오는 애국심을 느낄 수 있었다. 고딘디엠은 나와 만난 이듬해인 63년 11월 미국이 사주한 쿠데타 세력에 의해 살해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미국 정부가 고딘디엠을 제거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가 내건 민족자주 노선이었다. 그는 월맹과 전쟁을 하면서도 그쪽 지도자인 호찌민(胡志明)과 별도 비밀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정보를 미 중앙정보국(CIA)이 입수했다.

미국은 고딘디엠과 호찌민, 두 민족주의자들이 몰래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가진 것이다. 미국이 고딘디엠을 제거한 건 실수였다. 그 뒤 월남은 쿠데타가 빈발했고 새로 들어선 정부들은 자기 나라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려고만 했다. 무능과 분열, 부패로 정치 불안정이 커지면서 국민의 의지를 묶어내지 못했다. 반면 호찌민은 공산주의자이지만 참 대단한 사람이다. 강대국 미국과 끈질기게 싸워 통일까지 이뤘으니 말이다. 자유는 무위재래 無爲齊來(가만히 있어도 다가 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

적으로 쟁취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덕德이다. 힘은 사 용하려는 주체의 의지가 따르지 않는 한 진정한 힘이 되 지 못한다. 자유와 힘은 결국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다시 62년으로 돌아가자. 2월 24일 귀국해 박정희 의장을 바로 찾아가 동남아 순방 결과를 보고했다. 월남파병을 검토해 보자고 건의했는데 박 의장은 소극적이었다. 박 의장은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을 봐서 다른 나라에 군대 를 지원하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장은 파 병이 가져올 인명 손실을 걱정했다. 야당이 반대하며 물 고 늘어질 것을 염려하기도 했다.

월남파병은 61년 11월 박정희 의장이 미국을 처음 방문해 존 F 케네디(1917~1963) 대통령과 만날 때도 나왔다. 박 의장은 미국의 원조를 받아내는 반대급부로 월남 파병안 을 제시했다. 하지만 케네디는 신중했다. 이때만 해도 미 국이 월남에 본격적으로 군대를 보내기 전이었다. 64년 8 월 미군의 구축함이 월맹군의 어뢰정 공격을 받아 침몰하 는 ‘통킹만 사건’이 벌어져 월남전은 전면전으로 확대됐 다.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에 월남전 지 원을 호소했다.

월남전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파병해야 한다는 생각은 시 간이 갈수록 깊어졌다. 64년 2차 외유(6월 18일~12월 31 일) 중 미국에 체류하면서 월남 파병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느껴졌다. 미 국무부는 나의 외유 프로그램으로 하버드 대학의 헨리 키신저(이후 국무부 장관) 교수가 주 관하는 정치경제 특별세미나 과정을 마련해줬다. 난 하버 드에는 적籍만 걸어두고 주로 워싱턴DC에 가서 미국 의 원들을 만났다. 9월 16일 토머스 도드(1909~1971)의원 등 상원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군이 월남에 가서 미군 과 함께 싸울 수 있다”며 내 소신을 밝혔다. 그때 월남전 전황은 몹시 악화됐으나 미국과 같이 피를 흘려줄 나라는 거의 없었다. 기껏해야 호주가 병사 몇 명을 보냈고, 태국 이 공군기지를 빌려주고 심부름해주는 정도였다. 유럽국

가들은 하나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마저 파병에 소극적일 경우 미국은 한 국에 주둔하는 미군 2개 사단 중 일부를 월남으로 옮길 가 능성도 봐야 했다. 월남이 아니라 미국이 간절하게 우리 한테 매달리는 형국이었다. 이제 파병에 따르는 고민의 나날에 매듭을 지어야 할 시점이었다. 우리의 의지와 힘 을 보여줄 때가 왔다는 판단을 했다.

나는 미 상원의원들에게 “여러분이 한국군의 월남전 파병 에 동의하면 국무부에 얘기해서 우리 외무부에 정식으로 파병을 요청해 결론을 내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에게 “PL(농업수출진흥 및 원조법) 480호에 의 한 잉여농산물을 춘궁기 적기適期에 보내달라”고 요구했 다. 그들은 모두 감사의 박수를 쳤다. 나는 이어 도드 의원 방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화를 넣었다. 대통령은 내 얘기를 듣더니 “어이, 하버드에 가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 가서 그런 일을 다 했어? 그래그래, 알았어. 나도 동감이 야”라며 반가워하셨다.

월남 파병의 최종 결정은 박 대통령의 몫이었다. 우리 젊 은이를 사지死地에 보내는 선택 앞에 박 대통령은 밤잠 못 이루는 고뇌에 직면했다. 64년 12월 존슨 미국 대통령이 파병요청 친서를 보냈고, 이듬해 1월 8일 박 대통령은 국 무회의에서 결단을 내렸다.

월남 파병은 6·25 남침 때 우리나라를 위해 피를 흘려 준 미국에 대한 보답이란 의미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신뢰와 신의라는 무형의 자산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한국으로선 군이 살아있는 전투경험을 쌓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5,000년 한민족사에서 우리 군사력 의 해외 진주進駐는 전례 없는, 역사의 드문 경험이다. 맨 날 침략만 받던 나라가 대의를 위해 파병한 경험은 민족 의 진취적 기상으로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65년 3월 건설지원단으로 구성된 비둘기 부대가, 10월에

는 해병여단 청룡부대가 월남으로 떠났다. 66년까지 전투 병력 3개 사단이 뛰어들어 본격적으로 월맹군과 전투를 벌였다.

65년 5월 16일 박정희 대통령이 존슨 대통령 초청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했다. 존슨 대통령은 파월派越에 무척 고마워하며 보답으로 뭔가를 선물하고 싶다고 했다. 그때 박 대통령은 한국인의 이민을 허용하고 한국군의 장비를 현대화하며 과학기술 연구기관을 지어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 박 대통령은 나와 정상회담 때 제시

할 요청사항을 협의했다. 당시 한국군의 병기는 전부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쓰던 걸 물려받은 것들이었다. 또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데 선진 공업 기술을 도입하고 연구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게 66년 2월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다. 미국 측에서는 공과대학을 세우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지만 공업기술연구소가 우선이었다. 먹고사는 게 급한 나라에서 기초 기술보다는 기업에 필요한 응용 기술을 제공하는 기관이 절실했던 것이다. **金走**

〈중앙일보 2015.9.30 '소이부담'〉

윤정이 본 남월남 패망 원인

1995. 2.12. 민주자유당을 떠난 金鍾泌 전 대표는 청구동 자택을 방문한 월간조선 조갑제 기자와 10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했다. 김 전 대표는 파란만장波瀾萬丈의 정치 풍상風霜을 겪은 대정객大政客으로서 담담하고 진솔하게 자신이 걸어온 길을 더듬었다.

질 : 맥나마라 회고록回顧錄을 보면, 당시 미국에서 고딘 디 엠을 뒤엎었느냐 아니면 고딘 디 엠 체제하에서 베트남과 계속 싸우느냐에 대해서 토론이 붙었다고 합니다. 맥나마라 자신은 쿠데타를 반대했다고 하는데….

답 : 고딘 디 엠으로 하여금 끝까지 싸우게 했어야 했어요. 그것을 그냥 얹어버리니까 그냥… 수렁에 빠진 거지.

질 : 1962년 초에 정보부장으로 월남에 가서서 현지 조사를 하셨지요. 그때 고딘 디 엠을 만나셨습니까?

답 : 만났지요. 만나서 싸우라고 했지요. 나중에 대통령이 된 티우는 내가 갔을 때 월남군 1사단장으로 17도선度線에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국방부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했지요. 고딘 디 엠에게는 동생

고딘 누와 동생 부인이 측근으로 있었지만 미국이 이들을 자극해 전의戰意를 다 상실하게 하고, 지휘력도 약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쿠데타까지 일으키게 해가지고… 그때 월남은 끝난 거지요. 그러던 시기의 미국의 대외정책 같은 것은 더 정확하게 반성을 해야 합니다.

질 : 맥나마라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월남전에서 지게 된 첫 번째 이유가 고딘 디 엠 피살 뒤에 나타난 정치 세력이 불안정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베트남 소탕도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답 : 그저 도토리 키재기지. 키우라든지 민이라는 작자에게 미국이 계속 작용을 해서 민에서 티우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지휘력이라든지 대통령의 권위라든지… 자신들의 일을 자신들이 책임지고 하지 않고 미국을 시켜

대리전쟁代理戰爭하듯이 하게 되니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질 : 1962년 초에 월남에 가신 동기動機가 1961년 11월에朴 대통령이 최고회의 의장 자격으로 케네디와 정상회담을 했을 때였지요. 그때 “필요하다면 우리가 월남에 군대를 보내서 도와주겠다.”라는 제의를 먼저 했거든요. 그 뒤에 상황을 알기 위한 현장조사로 대표께서 가신 것 같은데, 고딘 디 엠을 만나셨을 때 국가 지도자로서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까?

답 : 그때 지지支持를 얻고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 이외엔 없었어요.

질 : 개인적으로 그에게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답 :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야말로 애국자구나 하는 펍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그런 부드러운 사람들이 위기에는 강력한 의지의 소유자가 되지요.

질 : 고딘 디 엠이 쿠데타로 넘어가고 동생하고 같이 암살暗殺되었는데, 그 직전에 그가 프랑스를 통해서 호志明(胡志明)과 직접 나라문제를 담판하여야 했고 그걸 정보기관에서 알아냈습니다. 그것이 고딘 디 엠을 쫓아내느냐 아니냐를 논의할 때도 하나의 화제로 등장했거든요. 미국은 분단국가가 자체문제를 직통 채널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요.

답 : 난 미국에서 무슨 논의를 했는지 그건 모릅니다. 우리도 북쪽하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월남도 해서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그 당시의 미국 사람들 사고방식思考方式으로서는 의심스럽다는 해석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학자들의 바뀐 해석들 중의 하나가 과거 1960년대에 가난하건 배가 고프건 말건 덮어놓고 민주주의 하라고 압력을 가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역시 민주주의 하려면 최소한의 경제

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 30년 전의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자초自招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황走** (1995. 2.12, 월간조선)

“나는 공산주의는 싫어하지만 호찌민은 존경할 만한 지도자”



나와 가깝게 지낸 외국 지도자 중엔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프랑코 총통이 있었다. 68년 10월 나는 정계를 떠난 야인 신분으로 스페인을 방

문해 처음 프랑코와 만났다. 이후 그가 36년간 철권통치의 막을 내리고 75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세 차례 더 만남을 이어갔다. 프랑코 총통과의 대화 중에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대목이 있다. 그가 먼저 “월맹의 호찌민(胡志明)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솔직히 대답했다. “나는 공산주의는 싫어하지만 호찌민은 존경할 만한 지도자입니다. 시종일관 깨끗한 의지를 가지고 싸워 프랑스를 물리치고 미국과도 강하게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프랑코 총통은 “나도 동감한다”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던 그가 호찌민을 높이 평가했음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일 것이다.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세계의 지도자들과 오래전 만남을 떠올리면서 나는 그들이 발휘했던 지도력을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

〈중앙일보 2015.9.30 '소이부담'〉